

추천 와인



지금 인기 와인 「수퍼·토스카나」
10년 숙성된 구하기 힘든 2006년
최고급 수퍼 토스칸 「루체」

LUCE 2006 **¥38,800**

[이탈리아 투스카니] 폴 보디

「루체」는 「수퍼·토스카나」와 다른 개성을 가진 와인입니다.
「수퍼·토스카나」라고 말하면 카베르네 쇼비뇽가 주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와인은 불네로 (산조베제, 그로소)이 와인의 원재료의 50% 이상을 차지 오히려 토스카나 다음을 남겨 두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슈퍼’인 이유는 이탈리아에서도 고품질 와인이 생산되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밭에서 더 옥 좋은 품질에 신경쓴 메를로를 생산하고 혼합한 것입니다. 브루넬로와 메를로의 두가지 포도의 품종의 개성을 갖춘 와인이라고 하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의 카스텔 조콘드 와인에 비해서도 부드러운 과일 맛이 두드러지고, 감칠맛은 있지만 역센 것보다 세련된 인상이 강한 와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EMOTION Bourgogne Rouge **¥8,000**

[프랑스 부르고뉴] 폴 보디



부르고뉴 드라이한 레드 와인 애호가 대주목! 품질과 평가 모두 금등의 희소한 재능을 가진 장인이며, 와인 제조 철학은 ‘맡은 신경을 많이 쓰고 양조는 가능한 자연적으로, 그러나 설비는 현대적으로’를 철저히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산 지랄당. 수령 50년인 비에유 비뉴의 피노 누아를 3주간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발효. 그때 르몽타주. 부드럽고 압착하며 프렌치 오크 통(새통10%)에서 전과 함께 12개월 숙성 후 조화를 이룹니다. 보통의 부르고뉴 피노보다 보디와 복잡한 맛이 있는 와인! AOC 부르고뉴의 구역을 훨씬 뛰어넘은 슈퍼 AOC불이 한정 극소량 입하! !

EMOTION Bourgogne Blanc **¥8,000**

[프랑스 부르고뉴] 드라이한맛

100% 퓨리니 몽라세 내의 A.C. 부르고뉴의 밭에서 수확한 샤흐도네에서 생산된 부르고뉴 블랑. 생산자의 지향하는 ‘마을 이름 수준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와인’ 같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선 품질이 높은 화이트 와인.